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1, pp. 203-210, 2020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1.203

치위생(학)과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 분석

원영순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Analysis of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Dental Hygiene Student Psychological Well-Being

Young-Soon Wo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천안, 전북, 전남의 3개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치위생(학)과 학생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SPSS version 19.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복탄력성의 지속성(β=.327)과 강인성(β=.294), 사회적 지지의 친구지지(β=.238), 회복탄력성의 낙관성(β=.109), 전공만족도(β=.090), 학년(β=.084), 충분한 수면(β=.078)의 순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치위생(학)과 학생, 융합요인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be applied to basic data for enhancing dental hygiene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version 19.0. The order of factors that affect the psychological well-being from the most to the least was sufferance(β=.327) and strength(β=.294) of resilience, support from friends of social support(β=.238), optimistic of resilience(β=.109), major satisfaction(β=.090), academic year(β=.084), and deep sleep(β=.078).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suggests a need for developing programme to increase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 follow-up study.

Key Words : Social support, 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Dental hygiene student, Convergence factors

1. 서론

우울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20대 환자는 2012년도 5만2,793명에서 현재 9만8,43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20대 환자들은 학업과 대인관계, 취업난으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1]. 이와 같이 많은 대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부적응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2].

심리적 안녕감이란 주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Ryff[3]는 심리적 안녕감을 자신을 있는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year 2019.
*Corresponding Author : Young Soon Won(hygiea73@wu.ac.kr)
Received November 18, 2018
Revised December 10, 2019
Accepted January 20, 2020
Published January 28, 2020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주위환경에 대한 지배력과 삶의 목적이 있는 상태로 개인의 행복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심리적 안녕감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무효능감과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4] 나타나 개인이 느끼는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5], 우리 사회 미래를 책임질 20대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크게 연관되어 있다[6,7]. 회복탄력성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으로 마음의 근력과 같다[8]. 또한 역경을 이겨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겪는 다양하고 수많은 스트레스와 인생의 고민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이겨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9].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생활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10], 회복 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이 두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로부터 안정적, 적극적 대처가 원활하다고 밝혀졌다[11].

또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주요 변인으로서[12],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존재로 여기고 의사소통 관계망의 일원으로 믿게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3], Cohen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 경우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확률이 낮고, 긍정심리가 유발되어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7]를 보고 하였다. 또한 Kim[14]은 사회 지지원 중에서 친구와 부모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더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들과의 지지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성인이 된 이후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15]. 그러나 실무위주 교육과정의 특성으로 타 전공 대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의학·보건계열 학생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 보건계열 대학생을 포함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경우 일반대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국가고시와 실기 및 임상실습, 체계적이며 엄격한 교육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복력이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 및 개선책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되었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위생과 학생 대상의 심리적 안녕감 연구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0,15]에 비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 전문인으로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긍정적 신념과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17]. 이와 같이 미래의 치과위생사로서 과업을 지닌 치위생과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성까지 포함[5]하고 있으므로 향상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며 나아가 치과위생사로서 개인의 발전과 직업가치관 확립을 촉진시켜 주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을 주요 변수로 하여 융합적으로 살펴보고,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에 필요한 긍정적인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천안, 전북, 전남 지역 소재 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대학의 교수님의 협조를 얻어,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다.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인 13개일 때 필요한 표본수는 189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는 257명이었다.

2.2 연구도구

2.2.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학년, 평균 학점, 가족 구성원의 수, 전공 만족도, 운동 여부, 충분한 수면 여부 등의 총 6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2.2.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Amason, Allen, & Holmes[22]의 도구를 Joe[23]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상사지원, 동료지원, 가족·친구지원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 맞게 가족·친구 지원 관련 8문항을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의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확인되어, 친구지지와 가족지지로 구분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은 .891이었고, 친구지지는 .883, 가족지지는 .865이었다.

2.2.3 회복탄력성

Connor와 Davidson[20]이 개발하고 Baek[21]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강인성 9개, 지속성 8개, 낙관성 4개, 지지 2개, 영성 2개의 문항으로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각각 .822, .846, .703, .572, .130으로 확인되어 이 중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영성의 하위영역은 항목에서 제외하여 총 23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7이었다.

2.2.4 심리적 안녕감

Ryff와 Keyes[18]가 제작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 Being)를 Park[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개 요인 즉, 자율감,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삶의 목적, 자기 수용으로 각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8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보다 낮게 나온 항목들은 제외하여 총 14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4문항의 총점을 심리적 안녕감으로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770이었다.

2.3 분석방법

SPSS version 19.0 (SPSS Inc., Chicago, IL, USA)으로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을 기술통계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로 하였다.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변수들간의 상관성을 확인하였고,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요인분석

Table 1은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전체 2개의 요인이 추출되어 1 요인을 친구지지, 2 요인을 가족 지지라 명명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Questionnaire items	Factor1	Factor2
I have a friend who can share joy and sorrow together.	.865	.209
I can discuss my problems with friends at ease.	.862	.142
Even when things go wrong, I have a friend who would help.	.825	.287
My friend sincerely helps me for what I am doing.	.724	.427
I am getting emotional support from my family.	.119	.907
My family sincerely helps me for what I am doing.	.218	.803
My family is willing to help me whenever I have to make tough decisions.	.381	.776
I can talk to my family comfortably when I have a problem.	.284	.745
% Variance	37.312	37.312
% Accumulated	36.902	74.214

3.2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기술통계

Table 2에 따르면 사회적지지의 하위영역인 친구지지는 5점 기준으로 4.14점, 가족지지는 4.07점이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 영역 중 강인성이 3.21점, 지속성이

3.46점, 낙관성이 3.35점, 지지가 3.70점으로 가장 높았다. 심리적 안녕감은 3.43점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N=257)

Variables		Mean	SD
Social support	Friend's suppoort	4.14	±0.67
	Family suppoort	4.07	±0.74
	Subtotal	4.10	±0.62
Resilience	Strength	3.21	±0.52
	Sufferance	3.46	±0.51
	Optimistic	3.35	±0.63
	Support	3.70	±0.61
	Subtotal	3.36	±0.45
Psychological well-being		3.43	±0.45

3.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p<.001). 4개 학년 중 3학년의 경우(p=.027), 학점이 높을수록(p=.004), 가족의 수가 4인 이하일 경우(p=.044),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p<.001),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경우(p=.003), 충분한 수면을 하고 있는 경우(p<.001)에서 회복탄력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점이 높을수록(p=.009),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p<.001)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n(%)	Social support		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MD±SD	t or F (p-value)	MD±SD	t or F (p-value)	MD±SD	t or F (p-value)
Academic year	1st	64(24.9)	4.07±0.63	.263	3.42±0.45	3.102	3.43±0.44	2.393
	2nd	80(31.1)	4.08±0.67	(.852)	3.24±0.49	(.027)	3.34±.045	(.069)
	3rd	57(22.2)	4.16±0.50		3.45±0.45		3.50±0.39	
	4th	56(21.8)	4.12±0.67		3.34±0.35		3.52±0.47	
College grades	≤2.0	4(1.6)	3.66±0.47	1.341	3.06±0.18	4.493	3.27±0.29	3.936
	2.0-3.0	78(30.4)	4.03±0.66	(.262)	3.23±0.51	(.004)	3.30±0.49	(.009)
	3.0-4.0	149(58.0)	4.14±0.61		3.41±0.41		3.49±0.41	
	≥4.0	26(10.1)	4.17±0.57		3.50±0.36		3.56±0.46	
Number of families	≤4	168(65.4)	4.10±0.65	.140	3.40±0.45	2.027	3.46±0.47	1.440
	≥5	89(34.6)	4.09±0.56	(.888)	3.28±0.44	(.044)	3.38±0.38	(.151)
Major satisfaction	Unsatisfied	36(14.0)	3.66±.076[a]	14.445	3.02±0.56[a]	23.258	3.11±0.44[a]	24.408
	Ordinary	103(40.1)	4.07±0.54[b]	(<.001)	3.28±0.39[b]	(<.001)	3.35±0.34[b]	(<.001)
	Satisfied	118(45.9)	4.26±0.58[b]		3.53±0.39[c]		3.61±0.45[c]	
Exercise	Yes	92(35.8)	4.15±0.63	.869	3.47±0.43	2.959	3.55±0.44	3.023
	No	165(64.2)	4.08±0.62	(.385)	3.29±0.45	(.003)	3.37±0.44	(.256)
Deep sleep	Yes	70(27.2)	4.20±0.57	1.493	3.54±0.38	4.239	3.52±0.39	1.860
	No	187(72.8)	4.07±0.64	(.137)	3.29±0.46	(<.001)	3.40±.046	(.064)

3.4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Table 4는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은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모든 변수들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p<.001).

3.5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사회적 지지의 친구지지와 가족지지, 회복탄력성의 강인성, 지속성, 낙관성, 지지를 모두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모형은 공차한계(tolerance)가 0.373~0.972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VIF)도 1.031~2.678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위험은 없었다. 모형1

은 18.9%, 모형2는 40.3%, 모형3은 66.0%로 설명력이 상승한 결과를 보였고, 3개의 모형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p<.001, p<.001, p=.018)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만을 포함한 모형1은 전공만족도(β=.352), 운동여부(β=-.156), 학점(β=-.142)의 순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20.945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사회적 지지인 친구지지와 가족지지를 포함한 모형2는 친구지지(β=.381), 전공만족도(β=.217), 가족지지(β=.154), 운동여부(β=-.144), 학점(β=-.124) 순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35.607이였다. 모형3은 회복탄력성인 강인성, 지속성, 낙관성, 지지를 포함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72.044이였다. 회복탄력성의 지속성(β=.327), 강인성(β=.294), 친구지지(β=.238), 낙관성(β=.109), 전공만족도(β=.090), 학년(β=.084), 수면(β=.078)의 순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Table 4. Correlations of the variables

		Social support		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Friend suppoort	Family suppoort	Strength	Sufferance	Optimistic	Support	
Social support	Friend suppoort	1						
	Family suppoort	.565(<.001)						
Resilience	Strength	.371(<.001)	.379(<.001)					
	Sufferance	.379(<.001)	.365(<.001)	.747(<.001)				
	Optimistic	.386(<.001)	.375(<.001)	.587(<.001)	.612(<.001)			
	Support	.403(<.001)	.273(<.001)	.423(<.001)	.551(<.001)	.449(<.001)		
Psychological well-being		.539(<.001)	.456(<.001)	.707(<.001)	.718(<.001)	.572(<.001)	.476(<.001)	1

Table 5.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psychological well-being

Variables		Model1					Model2					Model3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General characteristics	Major satisfaction	.221	.037	.352	6.036	<.001	.137	.033	.217	4.160	<.001	.057	.025	.090	2.244	.026
	Exercise	-145	.053	-156	-2.737	.007	-.133	.045	-.144	-2.928	.004					
	College grades	-.098	.040	-.142	-2.437	.016	-.086	.035	-.124	-2.479	.014					
	Grade											.035	.015	.084	2.287	.023
	Deep sleep											.078	.038	.078	2.055	.041
Social support	Friend suppoort						.253	.039	.381	6.487	<.001	.158	.027	.238	5.784	<.001
	Family suppoort						.093	.036	.154	2.581	.010					
Resilience	Strength											.251	.049	.294	5.109	<.001
	Sufferance											.284	.052	.327	5.486	<.001
	Optimistic											.078	.035	.109	2.234	.026
Constant		3.377					2.100					.384				
F		20.945***					35.607***					72.044**				
R^2		0.189					0.403					0.660				

4. 논의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수준을 살펴보고,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4.10점으로 친구지지(4.14점)가 가족지지(4.07점)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았다. 치위생과 학생들 대상의 선행연구[24]에

서 가족지지는 평균 3.24점을 보여 본 연구 결과 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측정도구와 연구대상자의 지역적인 차이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다양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도구마다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는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25].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지만,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아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회복탄력성의 수준을 조사해본 결과 평균 3.36점이었고, 3학년의 경우, 학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수가 4인 이하일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경우, 충분한 수면을 하고 있는 경우에서 회복탄력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을 때 3, 4학년의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3.42점이었고[26],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평균 3.70점[27]이었다. 대상자와 학년의 차이를 보이는 타 연구에서 평균 수치에 차이가 있었으나,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 학년이 높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고,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9]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회복탄력성이 높았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고,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하는 경우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았다[27]. 본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의 문항은 없었지만,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서 회복탄력성이 좋았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운동이 항우울제를 대신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긍정적인 작용을 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결과라 생각된다.

선행연구[26]에서 회복탄력성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학 전공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의 부적응 문제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보호요인이라고 하였다.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역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가 필요하다. 더불어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자기조절 능력이 증가 될 경우 회복탄력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9]. 그러므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형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수와의 상담 과정을 통해 학생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수의 지지가 뒷받침되는 상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심리적 안녕감은 평균 3.4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다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살펴본 결과[27], 3.82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는 1학년을 포함하였지만, 차이를 보인 연구는 1학년이 연구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난 연구 결과의 차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치과위생사 뿐 아니라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연구 결과를 비교할 수 없었으므로 치위생과 학생들 대상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대학생은 학교생활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높은 적응력을 보이며 원만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30]. 따라서 높은 적응력을 보이며 다양한 업무수행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원만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가 될 수 있도록 전공과목 이외의 비교과목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회복탄력성의 하부영역, 사회적 지지의 하부영역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회복탄력성의 지속성(β=.327)과 강인성(β=.294), 친구지지(β=.238), 낙관주의(β=.109), 전공만족도(β=.090), 학년(β=.084), 수면(β=.078)의 순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회복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였고, 이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이 심리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26]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임상실습스트레스 그리고 회복탄력성 중에서 대학

생활 적응에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은 회복탄력성이라고 하였다.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31]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중에서 회복탄력성만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계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논의에서 제시한 것처럼 치위생과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한 심리적 안녕감 향상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함께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을 선정시 연구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집단으로 임의표본추출을 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의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활용한다면 보다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과 일반적 특성 몇 가지를 고려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여러 변수들을 고려한 추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파악한 새로운 연구의 시도였다는 점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REFERENCES

[1] M. H. Kim. (2019.06.06.). Job stress, depression in your 20s, the surge in patients. It was 87 percent in six years. *Hankook-Ilbo, p. 11.*

[2] W. K. Lim. (2015). Influencing factors to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3(3),* 119-126.
DOI : 10.17547/kjsr.2015.23.3.119

[3] C. D. Ryff.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 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4] T. A. Judge, C. L. Jackson, J. C. Shaw, B. A. Scott & B. L. Rich. (2007).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The integral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1),* 107-127.
DOI : 10.1037/0021-9010.92.1.107

[5] H. J. Jung & C. H. Cho. (2012).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1(3),* 188-196.
DOI : 10.12934/jkpmhn.2012.21.3.188

[6] K. H. Chu. (2015). *Mediation effects of resilience between academic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Korea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7] S. Cohen & L. S. Syme.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 Academic Press.

[8] E. J. Anthony & B. J. Cohler. (1987). *Risk,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n overview. The invulnerable child.* New York : Guilford Press.

[9] J. H. Kim. (2011). *Resilience*. Kyungkido : Wisdomhouse

[10] N. M. Kim & S. S. Kim. (2013).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between lif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2),* 1125-1144.
DOI : 10.15703/kjc.14.2.201304.1125

[11] J. Y. Kim. (2008). *The relations among ego-resilience, subjective well-being, stress level and coping methods perceived by elementary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2] R. Schwarzer & K. Nina. (2007). Foundation roles of social support within the stress and coping proces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ov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2(4),* 243-252.
DOI : 10.1080/00207590701396641

[13] Y. J. Choi. (2007).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and scholastic competence perception on learned helplessness, inferiority complex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14] J. W. Kim. (2016).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Sookmung Woman's University, Seoul.

[15] E. Y. Jo & J. H. Lim. (2014). The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 Mediation by cognitive flexibility. *Studies on Korean Youth, 25(4),* 185-210.
DOI : 10.14816/sky.2014.11.75.185

[16] H. K. Kim & M. H. Lee. (2011).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41(5),* 642-651.
DOI : 10.4040/jkan.2011.41.5.642

[17] J. W. Hyun. (2001). *Study on empowerment among operating room nurse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8] C. D. Ryff & C. L. M. Keyes.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19] S. Y. Park. (2007). *Mother's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as related to child social competenc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 K. M. Connor & J. R. T. Davidson.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DOI : 10.1002/da.10113

[21] H. S. Baek. (201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Seongnam.

[22] P. Amason, M. W. Allen, & S. A.Holmes. (1999).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in the multicultural workplace,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27(4),* 310-334.

[23] E. R. Joe. (2016).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upon resilience.* Master's thesis. Korea Aerospace University. Goyang.

[24] H. H. Min, H. J. Kim, & H. J. Lee. (2018). The effect of ego-resilience, family support and teaching effectiveness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8(3),* 411-421.
DOI : 10.13065/jksdh.2018.18.03.411

[25] E. I. Son & J. S. Song. (2012).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6),* 3953-3975.

[26] H. S. Hong & H. Y. Kim. (2016). Effect of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a Sociology, 6(2),* 221-234.
DOI : 10.14257/AJMAHS.2016.39

[27] Y. E. Lee, E. Y. Kim & S. Y. Park. (2017).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in nursing a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3),* 385-393.
DOI : 10.4094/chnr.2017.23.3.385.

[28] J. Y. Kim. (2018).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resilience, and occupational self-efficac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269-276.
DOI : 10.15207/JKCS.2018.9.1.269

[29] D. J. Kim & J. S. Lee. (201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244-254.
DOI : 10.5977/hkasne.2014.20.2.244

[30] M. S. Kim, H. W. Kim & K. H. Cha (2001).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 - being(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2),* 19-39.

[31] S. Y. Kim. (2016).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Korea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원 영 순(Won Young Soon) **[정회원]**

· 2012년 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 보건
· E-Mail : hygiea73@wu.ac.kr